

이순신과 영웅의 쇠신

-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윤진현*

1. '인간 이순신'이란 이데올로기
2. 소설과 대하드라마의 거리
3. 21세기형 영웅의 정체
4. 맺음말

국문요약

이순신은 1970년대 이후 추앙되어온 국가적 영웅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그 영웅성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로 닥친 경제 위기와 국가적 영웅 서사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적 필요에 따라 '이순신'은 새로운 영웅으로 호명되었다. 김탁환의 『불멸』과 김훈의 『칼의 노래』는 박정희 체제에서 이순신을 영웅으로 교육 받은 세대가 '이순신'으로부터 '박정희'를 소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웅, '인간 이순신'으로 쇠신한 결과이다. 근대국가의 영웅이란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따라 구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창안해낸 이순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이들의 시도 또한 작가 개인의 필요와 창작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국가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KBS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매스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의 '대하드라마'라는 공공 형식으로 재생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존의

*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대하드라마와는 다르게 수미가 상응하는 완결된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순신의 영웅성을 집단적으로 재해석하여 이순신을 평가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작품에서 이순신은 단독의 영웅이 아니라, 정운, 나대용, 권준 등 수많은 수하장수와 장졸들의 헌신 및 충성과 함께한다. 이순신의 영웅성은 이순신 개인의 지략과 전술보다 이들을 발탁하고 재능을 끌어내며 이들에게 변치않은 신뢰와 후원을 보내는 데서 보다 강조된다. 이순신의 이러한 면모를 강조하기 위하여 KBS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여성인물의 약화와 부정적인 주변인물의 실종 등 서사 상의 파행을 야기하였고 대립적인 인물인 원균과 윤두수 등의 서인의 역할은 초기의 제작의도와는 달리 단선적인 악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국정책임자인 선조의 부정성이 크게 부각된 바, 이순신과의 동일시를 통해 국가적 구원자를 자처하던 박정희의 그림자를 국정책임자의 부정적 역할에 기대어 효율적으로 제거하려던 원작자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이다.

이 작품이 기존의 작품과 다른 점은 곤양의 도요지를 젊은 날의 이순신의 방랑처로 설정하고 일명 차사발전쟁으로도 불리는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숙명적으로 결합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원작자 김탁환의 역사적 상상력이 빚어낸 특유의 산물로 이순신을 민중의 지도자로 규정하는 기반이 된다. 이것은 구원자 이순신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재능과 역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하는 데에 21세기적 요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KBS의 대하드라마, 집단영웅, 민중적 지도자.

1. ‘인간 이순신’이란 이데올로기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2004. 9.4~2005. 9.4)이 중영되었다.¹⁾

1) 프로듀서: 정영철, 연출: 이성주 · 김성규, 극본: 윤선주 (박영숙, 윤영수, 장기창)

한국인 누구나 ‘이순신’이란 영웅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의 의욕과 시청자의 관심은 비상한 것이었고 미디어는 이를 가능한 한 확대재생산하는 데 충실하였다.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당시 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지적,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²⁾ 기획의도는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를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충실히 반영되어 온 나라는 분노에 휩싸인다. 마치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이 ‘왜는 반드시 조선을 침략한다’고 주장하자 ‘대마도 정벌’을 기치로 선전포고라도 먼저 할 기세였던 1591년의 조정과 방불하였다. 때맞춰 방송된 옥포해전은 사실감 넘치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스펙타클을 내세워 시청률을 30%대까지 끌어 올렸고 ‘21세기 새로운 지도자 상’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회구하는 30~50대 남성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순신의 형상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이 이순신』이 문화적으로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1990년대’ 이후 의욕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간 이순신’이란 화두가 드디어 가장 대중적인 TV드라마를 통하여 전 국민의 것으로 확산되었다는 데 있다. 이 작품의 원작인 김훈의 『칼의 노래』나 김탁환의 『불멸』³⁾에서 형상화된 새로운 ‘이순신’은 종래의 ‘성웅’적 이미지보다는 그 ‘인간’적 면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역사전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천우는 이순신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검토하여 전사 위장설을 도전적으로 제기한 바 있고, 김태훈은 이순신의 행적과 임진왜란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700쪽에

2) <http://www.kbs.co.kr/drama/leesooshin/about/plan/plan.html>

기획의도 및 대본 인용 등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대한 인용은 이상의 사이트를 참고로 함.

3) 김탁환은 이 드라마의 시작을 전후하여 『불멸의 이순신』(황금가지, 2004)이란 제목으로 제출 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판본을 참고하였으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구분하기 위하여 원제였던 『불멸』을 사용한다. 『불멸』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98년, 미래지성 출판사를 통해서였다.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 출간하였다.⁴⁾ 또한 최근 들어 이순신의 『난중 일기』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출판되기도 하였고⁵⁾ 이순신이 최초로 영웅화되기 시작했던 1795년 정조 19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두 번째로 총 6권의 『忠武公李舜臣全集』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하였다.⁶⁾

역사적 사실의 호출이란 역사가의 현재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고전적 언명을 되새겨 본다면 이러한 ‘이순신 현상’은 성웅 이순신을 인간 이순신으로 재구성하는 특정한 목표와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세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라는⁷⁾ 언급이 그대로 진실임을 이해하게도 된다. 이제 이순신은 ‘성웅’의 모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대중은 이순신에게 ‘성웅’ 이외의 ‘인간’의 모습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웅’에서 ‘인간’으로 재탄생한 이순신이 전대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대답은 회의적이다. 2005년 현재 대중이 구상하는 이순신은 1970년대 김지하가 그의 작품 「구리 이순신」에서 구상했던 ‘구리웃’을 벗은 이순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광화문 네거리, 위압적인 이순신 동상과의 대화를 통하여 김지하는 이순신을 ‘구리 웃을 입은 백의병사(白

4) 남천우, 『이순신』, 역사비평사, 1994.

김태훈, 『이순신의 두 얼굴』, 창해, 2004.

이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윤진현, 「1970년대 역사 소재극에 나타난 담론투쟁 양상 - 이재현의 『성웅 이순신』과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6호, 2004.11, 34-62쪽.

5) 이순신/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6) 이순신 지음/ 최두환 역주, 『忠武公李舜臣全集』 1-6권, 우석출판사, 1999.

첫 번째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은상, 『李忠武公全書』, 충무공기념사업회, 1960.

7) 성백용, 『울긴이의 말』, 크리스티앙 아말비,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프랑스 역사에 나타난 영웅의 탄생과 몰락』, 아카넷, 2004, 290쪽.

衣兵士)'로 규정한다. 이순신을 흰옷을 입은 한 명의 평범한 백성, 역사의 주인, 민중으로 호명하는 김지하는 '구리 옷'을 벗긴다는 파격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이순신으로부터 박정희의 그림자를 거둬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안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곧 이순신에게 구리옷을 입힌 주체이니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자 구리옷을 벗은 이순신의 형상 또한 자연스러워졌다. 구리옷을 벗고 하얀 옷의 백성으로 돌아온 '인간 이순신'의 형상에 대중은 매혹되었다. 그러나 인간 이순신은 이미 '이순신'이란 영웅을 전제로 성립한다. 영웅 이순신의 내면에 인간 이순신이 있다고 상상하기는 쉽다. 그러나 영웅의 이면은 비어 있다. 옷은 곁에 걸치는 것이다. 여기에 고뇌하는 소시민의 옷을 입힌 것이 김훈이라면 의협심 강한 '소학 읽는 무인', '칼을 찬 사람'의 옷을 입힌 것은 김탁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형상화하고 싶었던 진정한 '인간' 이순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순신을 다루는 모든 문헌 - 역사, 전기, 문학이 이미 이순신의 위대성에 합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구축된 '영웅' 이순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순신의 영웅성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순신은 거론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순신의 위대성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기록물이며 당대 장수들과 이순신의 결정적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의 치열한 기록정신이다. 기실 조선왕조는 기록의 왕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 왕 자신이 기록하는 '일성록', 선대왕의 행적과 평가를 기록하는 실록에 이르기까지 지배조직의 기록은 이중삼중의 검증과정을 거치며 기록되었고 학자나 문인은 자신의 글을 착실하게 모아 문집을 엮고 행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문신, 선비에 집중되었고 무신과 장수들은 이러한 능력과 역할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니고 있었다. 즉 조선 시대 문자

를 소유한 계층은 양반 중에서도 유학사림에 한정되어 있었으니 오랜 세월 글쓰기를 훈련하여 뜻하는 바를 표현하는 능력이 곧 권력이었다. 원균이나 권율에게는 없는 진중일기가 이순신에게 존재하며 전란 중에 소실되고 축약된 장계의 초고와 사본이 남아있어 이순신의 입장과 발언을 중심으로 당대를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 평가는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이순신의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문자의 시대라 하는 근대에 이르러 '이순신'은 그 어떤 장수나 영웅보다도 압도적인 우위에서 민족의 대표적 영웅서사로 거듭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논하는 '인간 이순신'이란 시작부터 이미 일종의 형용모순일 수 있으며 거대했던 이순신의 옷을 줄여 입은 작은 이순신, 즉 반영웅주의의 외관을 가장한 소영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⁸⁾

그러나 다양한 경로에서 추진되어온 이순신 프로젝트가 단순히 박정희식 이순신에 대한 반동이거나 부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영웅 이순신'은 한국인에게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이며 여기에 '인간'이란 새로운 의미층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 할 것이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기획의도는 이러한 심증을 더욱 깊게 한다.

21세기 왜 이순신인가?

* 21세기의 새로운 지도자 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해야 할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시대를 리드해 나갈 지도자는 과연 어떠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화해 승리를

8)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윤진현, 앞의 글, 53-59쪽.

이끌었던 이순신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지도자 상이 아닐까?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 지도층이 중심을 잃고 표류할 때 흔들림 없는 애국심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신념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구애 받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구습을 과감히 타파하여 철저한 준비와 개혁의지로 부하들을 이끌던 이순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 상인 것이다.

* 경제 전쟁 시대, 이순신은 유효하다.

21세기는 무한 국가경쟁시대, 바야흐로 경제 전쟁의 시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2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이다. 원군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여 단 열두 척의 배만이 남았을 때, 이순신은 수군을 없애겠다는 조정의 공론에 반박하여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왜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왜선 앞에서 동요하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러한 '尙有十二'의 정신, '必死即生, 必生即死'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한 덕목인 것이다.

* 임진왜란을 되돌아보며 역사에서 배운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사점이 많다. 안으로는 쓸 한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적인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지 못한 점, 북핵문제와 SOFA 개정문제를 둘러싼 불편한 한미 관계 등으로 상징되는 외교적 상황은 국제 정세에 어두워 왜란을 자초했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다시 보며 국론과 외교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드라마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임진왜란은 결코 패배한 전쟁이 아니었다. 침략자의 의지를 끊고 조국의 산하를 지킨 승리한 전쟁이었다.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조국을 지킨 이순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마침내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영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순신의 생애

를 통해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⁹⁾

이상의 장황한 기획의도로 보면 우리가 배워 온 이순신의 형상에서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은상은 충무공의 정신은 '제 힘으로 사는 정신, 정의를 목표 삼는 정신, 국토를 사랑하는 정신, 국민과 같이 가는 정신, 새 길을 뚫고 가는 정신'으로 규정하였다.¹⁰⁾ 1960년대부터 이미 이순신은 새 길을 뚫고 가는, 구습을 타파하고 정의를 목표 삼는 원칙주의자였으며 제 힘으로 사는 정신을 지닌 '하면 된다'의 화신이었고 국토와 국민을 사랑하며 함께 가는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불멸'의 이순신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어떤 낡은 폐단을 없애고(刷) 새롭게(新) 하였을까? 본고의 질문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통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이순신의 형상을 추적하고 그 형상화의 방법과 결과적으로 도달한 '이순신'에 대한 대중적 합의의 실상을 살펴볼 것이다.

2. 소설과 대하드라마의 거리

지난 2005년 8월 31일자(인터넷판) 한겨레 신문에는 '전통적 드라마 주시청층인 여성 40~50대를 벗어나 30~50대 남성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가장 많이 봤다는 시청률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KBS 대하드라마'라는 매체를 고려하지 않은 논평이다. KBS 대하드라마는 본래부터 여타의 여성 중심의 TV 드라마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중 있는

9) <http://www.kbs.co.kr/drama/leesoonsin/about/plan/plan.html>

10) 이은상, 『성웅 이순신』, 삼중당, 1984, 145-170쪽.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모든 공적 역사가 '남성형'으로 기술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고 부수적으로는 해설(나레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입장을 전파하는 교육과 계몽의 기능 또한 중시되고 있다. 주요 타깃으로 삼고 시청자층 또한 중장년층의 남성 시청자이며 제작 방식 또한 스케일과 동원 규모에서도 초대형이다. 보통 수백억대를 헤아리는 대규모 예산과 대형 세트장, 기백명을 헤아리는 등장인물, 연인원 수 만명에 달하는 동원 인원 등 그 규모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적 성격의 여타 드라마와 차별점이 명백하다.

1990년대 초반 새로운 역사 드라마와 지도자를 구상하며 방영되었던 『용의 눈물』은 그 규모와 해석에서 나름대로 전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고 IMF 시기에 대폭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수대비'를 다룬 여성 궁중사극풍의 『왕과 비』로 후퇴했었을 뿐, IMF가 종료되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웅장한 『태조 왕건』, 『제국의 아침』 등을 방송했으며 무신정권 시기에 대한 새로운 소개 및 해석에 의욕을 보였던 『무인시대』 등 고려시대를 다룬 3부작을 제작, 방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인시대』는 그 소재의 비생산성과 비대중성 때문에 시청자의 냉담한 반응과 저조한 시청률에 부닥쳤고 따라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적인 기획의 요구가 성숙하고 있었다. 이 즈음 박정희 이후로 다시금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이 주목 받은 김훈의 『칼의 노래』는 수상이력과 함께 평론가의 극찬으로 이순신의 귀환을 공식화했고 이와 아울러 대하소설로 출간된 김탁환의 『불멸』은 1인칭 고백체로 기술된 『칼의 노래』가 지니지 못한 연대기적 서술을 감당함으로써 새로운 이순신의 형상화라는 기획을 촉진하였다.

이는 KBS 대하드라마라는 프로그램이 공공성과 시청률로 대변되는 상업성의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케 해야 할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상반된 목표라는 것은 방송이 지닌 근본적인 자

본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아주 쉽게 그 균형을 깬다는 것, 그리고 상업성으로 기울어져 공공성이란 한낱 추상적인 포즈로 존재하기 일쑤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 제작과정 자체가 시청자의 시선과 요구를 내포하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성격에서 벗어나 미시적이고 파편적인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초의 목표나 취지대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달성된 시청률은 곧바로 광고 수익과 직결된다.

물론 KBS 대하드라마는 공영 프로그램으로서 광고로 직접 제작비를 조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전파량이 환산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경제적 환산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이익 또는 그러한 가치에 더욱 긴밀하게 한정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그것이 '이순신'처럼 전 국민적인 공유 기억에 해당되는 것일 때에는 새로운 해석과 형상화라는 의의 없이는 시도되기 어려운 것이며 또한 그 의도가 전문가에 가까운 수많은 시청자들의 관점과 수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역사 또는 원작으로부터 이탈하여 주관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변형될 여지는 초반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시청자를 브라운관 앞에 잡아두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의 나열보다는 사건과 갈등이 분명한, 달리 말하면 선악과 흑백이 분명해야 수월하게 시청자를 설득할 수 있는 드라마의 문법에 더욱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질과 파행을 막기 위하여 『불멸의 이순신』은 나름대로 형식적인 방어책을 준비해 두었다. 예를 들면 1-4회는 100-104회와 같다. 『불멸의 이순신』은 드라마 진행과정에서 돌출되는 변수에 따라 인물의 비중과 성격이 변질되는 여타의 드라마와는 달리 일관성과 완결된 기획 하에 방영된

다는 원칙과 함께 이와 같이 형식상 끝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중반부와 상응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드라마의 기획의도가 중간에 변질되는 것을 막고 초반 강렬한 스펙타클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이순신 및 류성룡과 대립하는 윤두수 등의 서인 진영과 국왕 선조의 입장 또한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이 일방적인 악인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구도 속에서 나름대로 살기 위한 전술전략을 구사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특히 국왕 선조를 이광수 등 이전의 문학작품과는 달리 독립적인 정치가로 해석한 것은 국왕을 무오류로, 즉 국가 자체로 해석하거나 소심하고 무능하여 간신배들에게 휘둘리는 인물로 해석되던 이전의 선조상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구국의 지도자상으로 구축되어 있던 이순신/박정희 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광수, 또는 박정희 정권의 이순신 기념사업에서 구축되는 대립구도는 무능한 선조/국가/국민, 원균·윤두수 등 서인/간신/반박정희파, 이순신/박정희 등과 같다. 그러나 이를 백성/국가/국민, 선조/지배권력, 원균·윤두수 등 서인/특정정치세력, 이순신·류성룡/특정정치세력 등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들여 축조한 이순신/박정희의 자리는 여의치 않게 된다. 아울러 당시의 국정책임자인 선조의 부정성이 크게 부각된 바, 이는 이순신의 ‘구리옷’을 벗겨내려던 원작자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관철된 결과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 우선 매우 상이한 두 편의 작품에서 각기 다른 성격을 조합하여 이순신이란 인물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작품이 지니는 성격 상의 균열 또한 이미 시작부터 내장된 것이었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1597년, 정유년의 파직과 투옥, 백의종군을 거쳐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되는 이순신의 숨가쁜 도정을 다루고 있다. 사건과 서사를 오히려 최소화하고 이순신 개인의 독백이 중심이며 고백에서 오는 단조로움은 화려한

수사와 유려한 문장으로 보완하였다. 이 보완은 이 작품에서는 특징이나 장점이 아니라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 동인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구국 영웅의 무훈담을 마음으로 세상을 버린 자의 단단히 응고된 울음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울음을 투명한 악기로 탄주함으로써 음표의 표기가 불가능한 음역의 노래로 재창조하였다.”고 하였고 “이 노래 속에서는 음률이 곧 이야기이니, 어떤 해석도 완벽히 그 가사를 배길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이 노래 속에서 마음의 풍경만이 곧 강렬한 사건이어서, 어떤 열쇠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채, 오직 존재함의 승엄한 비극만이 독자의 가슴팍을 파고” 든다고 극찬하였다.

이는 스타일리스트가 적은 한국 문단에 새로운 장인 정신을 지닌 작가의 탄생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일부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스타일리스트란 그 스타일 안에 새로운 철학을 담지할 때 탄생하는 것이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원작 『칼의 노래』의 흔적은 일기 쓰는 장면이나 장계를 쓰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나레이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또한 대부분 ‘난중일기’나 ‘임진장초’ 등 이순신의 원전에서 인용한 문장들이 대부분이다. 김훈의 문장은 묵독을 전제로 한 근대적 독서 관행 안에 갈등 없이 안착해 있으며 근본적으로 시각적이므로 청각적으로는 향수되기 어렵다.

김탁환의 『불멸』은 그간 문헌기록에 간혀 있던 이순신의 연대기를 최초로 허구적 상상력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김탁환의 서사적 상상력에 크게 의지하여 주요 스토리라인을 이에 기대고 있다. 『불멸』의 특징은 이 시기 역사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당대 민중 인물을 주요인물로 창안해냈다는 데 있다. 필생의 숙적, 무모하고 어리석은 간신으로 해석되던 원균을 도전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오랜 세월 우의를 다져온 인물로 양자택일 혹은 흑백논리를 벗어난 인물 평가를 시도했

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군왕 선조와 어심의 향배를 놓고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는 관료들과 동서 봉당 또한 단순히 어리석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험난한 현실상황 속에서 권력을 재생산하고 각기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또한 곤양 도요지를 배경으로 이순신의 생애를 좌우하는 민중 인물들을 대거 창안해 내었으니 기층 민중과 지배 권력을 아우르는 중간 지대에 문제적 인물 이순신을 배치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이다. 임진왜란 중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으로 도공과 조선다완을 꼽았고, 종전 후 이때 끌고 간 도공들의 작업에 힘입어 일본의 도자기가 크게 발전할 정도였으며 이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명 ‘차사발 전쟁’이라 일컫게 되었으니 임진왜란에서 다완과 도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전란을 통해 가치가 재창조된 차사발을 이순신의 연대기 중 미지의 영역인 등과(登科) 이전의 젊은 이순신의 행적에 결합함으로써 이순신의 생애에서 임진왜란이 차지하는 필연성을 강화하였다. 박미진, 소은우, 장평, 남궁두, 날발 등은 이러한 필연성을 매개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인물은 역사적 사실, 또는 원작과는 달리 일본으로 끌려가 사발을 굶지 않는다. 『불멸의 이순신』의 소은우는 왜의 간자가 된 장평을 설득하여 이순신에게 조력하게 하고 “너 사람되는 것 보고 죽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재능 있는 사기장 소은우, 굶고 싶은 사발도 많았을 텐데, 정말로 아무 여한 없이 죽었을까? 김탁환의 『불멸』에서 예술가로서의 천명에 순응하여 사발을 굶는 것으로 묵묵히 마음을 보내던 소은우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지극한 애국애족주의자가 되어 어린 시절 사랑했던 장평이 조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아무 여한 없이 죽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으로 끌려가서도 도자기를 만들어 일본 도자기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린, 사명당의 협상으로 조선인들이 귀환할 때도 돌아오지 않았던, 조선인 도공의 입장과 이야기는 증발하고 만다. 이들의 이

야기를 다루기에는 시청자가 공유하는 '가상의 한민족'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며 충돌하는 두 세력의 갈등으로 구성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들은 포괄하기 어려운 모호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탁환의 소설에서 지켜지는 절묘한 균형감은 '소설'이란 장르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들이다. 드라마로 재구성되는 순간 이러한 부정적 인물의 필연성은 그 균형감을 상실하고 단순한 선악 대결로 재정립되며 득의의 창안이던 젊은 날의 '곤양 도요지'의 이순신은 고뇌하는 인간 이순신이란 상상보다는 이순신이란 인물의 영웅적 운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왜장 와키자카의 형¹¹⁾을 죽이고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얼굴에 흉터를 남긴 이순신이 임진왜란 남해 바다에서 필생의 숙적으로 만나다니 이들의 운명이 공교하지 않은가? 때문에 위태롭게 지켜지던 소설적 균형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더욱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KBS 대하드라마라는 그 남성적 속성으로 인해 여성 인물을 위한 추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 김훈이 형상화한 '여진'이란 인물은 흔적도 없다. 이순신은 정치인 상주 방씨 이외에도 부안사람, 최귀지 등의 첩이 있었고 『난중일기』에는 여진 등의 인물이 자고 간 사실들을 기록되어 있어 김훈의 상상력 안에서 여진이란 인물은 매우 인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천한 신분의 몸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성스러운 창녀'의 이미지는 사실 여성의 몸을 고해와 재탄생의 기호로 사용하는 남성 문학의 상투적인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대한 이순신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순간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설 속의 여성은 드라마에서는 동료 및 수하장수들의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축첩 및 수청의 제도에 대한 현대인의 부정적 입장이 관철되어 21세기의 영

11) 소설에서는 동생임.

용으로 재탄생하는 이순신의 프로필에서는 삭제되는 것이다.

또한 김탁환의 『불멸』에서 형상화된 박미진과 초희라는 매력적인 인물도 드라마 중간에 유실되고 만다. 드라마 기획 초기에 멜로 라인 없이는 드라마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계산으로 설정된 여성 인물들은 수 차례의 캐스팅 착오를 겪으면서 확정되었으나 스토리 전개에 걸림돌이 되자 슬그머니 제외되었다. 이는 여타의 여성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등장 초기에 도전적인 대사와 기획 인터뷰 등으로 바람을 조성하려 했던 기생 ‘청향’은 말미에서 ‘이영남과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웨인 간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성격의 ‘홍이’, 이순신의 아내인 ‘연화’와 어머니 ‘변씨’, 심지어 일종의 감초역으로 설정되었을 ‘넙출네’까지도 변변한 성격 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이순신’이 영웅성을 남성적 코드로 재구축하면서 여성배역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잃고 마는 것이다.

아울러 강화된 선/악 구도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이르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초반 이순신과 세계의 불화를 추동하는 동력은 이순신이 ‘역도의 후손’이라는 데 있다. 빈한한 가세와 또래집단의 따돌림, 아버지의 투옥과 아산으로의 낙향, 거벽이라는 장애, 온양 행궁의 과거 낙방까지 이순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모두 할아버지 백록이 기묘사화로 사사된 조광조 일파라는 데 있다. 그러나 조광조 등의 기묘명현은 이순신이 태어나던 1545년 인종에 의해 신원되었으며 현량과가 복과되어 명예를 회복한 상태였으니 이순신을 역적의 후손으로 따돌리거나 과거에서 낙방시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즉 당시 사정을 두고 보면 빈한한 가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도 아산의 외가와 처가 방씨 가문 등의 조력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주경야독의 관습 또한 그다지 드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문무를 겸전한 이순신의 역량을 고려할 때 청년기의 이순신은 더 큰 포부를 키우며

자신을 수련하고 때를 기다리는 인재였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¹²⁾

김탁환의 『불멸』에서는 이상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순신의 갈등의 근원을 당대의 부패한 현실 상황과 ‘의협’의 가치에서 찾고자 하였고 이것이 드러나는 사건의 공간적 배경을 곤양 도요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전개는 드라마에서는 너무 밋밋한 것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드라마 초반에서 이순신이 ‘역적의 후손’이라는 설정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건을 생산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 이순신의 성장과 단련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을 이기고 자신을 넘어서는 ‘불굴의 영웅 이순신’이란 면모를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미기록 부분인 청년기에서 의협심 강하고 출중한 무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면서 비교적 밀도 높게 진행되던 원균에 대한 재평가는 『난중일기』와 각종 장계 등에서 이순신의 판단과 감정이 노출되는 기록 영역으로 진입되자마자 그 긴장과 일관성을 깨고 권력과 쟁공에 열중하는 기존의 형상을 답습하고 만다. 이순신은 실제로 원균을 미워했으며 원균의 인격과 성품 등에 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은 『임진년 왜병을 맞아 싸우고 조정에 올린 장계와 『난중일기』에서 살필 수 있는 원균에 대한 언급이다. 원균에 대한 불신과 미움은 개전 초기부터 있었고 1593년에 이르면서 일기에서조차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원균은 개전 초기 전선과 군사를 거의 잃고 전라 좌수영과 연합하지 않고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바, 옥포해전에는 3척의 배를 끌고 참여하였고 당포해전에서는 주로 접전이 종료된 후 죽은 왜인의 수급을 취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12) 조카 이분(李芬)이 기술한 『行錄』에는 어린 시절의 이순신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으나 매우 소략하고 이미 이순신에 대한 입장이 확정된 다음에 기술된 것이라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분, 『행록』, 이은상 역, 앞의 책 하권, 17-18쪽.

오직 우수사 원균은 단 3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신의 여러 장수들이 사로 잡은 왜선을 활을 쏘면서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부와 격군 2명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장으로써 부하들의 단속을 잘못된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1592년 5월 10일 「옥포파왜병장玉浦破倭兵狀」)¹³⁾

6월 1일 새벽에는 경상우수사 원균이 신에게 말하기를 “어제 접전할 때 짐짓 남겨둔 적선 2척이 도망쳤는지 알아볼 겸 화살에 맞아죽은 왜놈의 목을 베겠노라.” 하였는데 처음에 원균은 패군한 뒤 군사 없는 장수로써 작전을 지휘할 수 없었으므로 교전하는 곳마다 화살이나 첩환에 맞은 왜인을 찾아내어 머리 베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1952년 6월 14일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狀」)¹⁴⁾

1593년 1월 22일 : 발포 2선, 가리포 2선이 명령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얇은 곳에서 (좌초에) 걸려 적들에게 공격 당하고 말았다. 분하고 분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얼마 뒤 진도 지휘선이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우후가 바로 들어가 구해내었다. 경상 좌위장과 우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못 본 채하고 끝내 도와주지 않았다. 껄뻐하여 말하기조차 싫다. 분하고 분하도다! 이 때문에 경상도 수사 원균을 꾸짖었지만 통탄스럽다. 오늘의 분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모두가 경상도 수사 때문이다.

1593년 2월 23일 : 원 수사는 너무도 음흉하여 말로는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다.

1593년 3월 2일 : 이영남과 이여덩이 와서 원균의 비리를 진하였다.

1593년 5월 8일 : 바로 당포에 다다르니 마침 이영남이 와서 만났는데 수사(원균)가 망령 부리는 일이 많다고 상세히 말하였다.

1593년 5월 14일 : 술이 여러 배 들자 경상 수사 원균이 왔는데 술주정이 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배 안의 장병들 중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13) 조성도 역, 『임진장초』, 연경문화사, 1983, 42쪽.

14) 위의 책, 48쪽.

그 망령된 것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다.

1593년 5월 21일 : 원수사가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대군을 동요하게 하였다. 진중에서도 속인을 쓰는 것이 이럴 정도이니 그 흉악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1593년 5월 30일 : 원군이 송경략이 보낸 불화살을 자기만 쓰려고 하였으나 병사 편에 공문을 보내 나누어 보내라 하니까 공문의 내용을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명나라 관리가 보낸 불화살 1천5백 30개를 나누지 않고 혼자서 모두 쓰려고 하다니 그 잔폐가 아주 심하여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저녁에 조봉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해현령 기효근이 배를 우리 배 곁에 대었는데 그 배에 어린 처녀를 싣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다. 우습다. 나라가 위급한 이때 배에 예쁜 색시를 싣기까지 하니 그 마음 씩씩이가 꼴이 아니다. 그러나 그 대장이라는 원군부터가 이러하니 어찌하겠는가?

1593년 6월 10일 : 새벽 2시쯤에 경상수사 원군의 공문이 왔는데 내일 아침에 진군하여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그 음흉한 꾀와 시기심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날 밤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1593년 6월 11일 : 아침에 왜적을 토벌할 일에 대하여 공문을 작성하여 경상 수사에게 보내었다. 그는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회답하지 않았다.¹⁵⁾

『난중일기』는 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빠진 날 없이 계속된 것은 아니다. 1593년만 하더라도 1월 한 달의 일기와 3월 23일에서 4월까지의 일기는 빠져 있으며 날씨 ‘맑다’ 한 단어로 그친 날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상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2월에서 6월에 이르는 동안 원군에 대한 언급은 10일을 넘기지 않고 비난하는 수식어와 함께 빈번히 거론되고 있으며 원군에 대한 기술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될 때조차도 그 미움이 묻어날 정도이다. 군중의 규율과 군수물자 준비 등과 관련한 징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지속적으

15) 이순신/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87~108쪽 참고.

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이순신은 원균을 음흉하고 시기심이 많은 자로 판단하여 감정적으로도 싫어했으며 그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순신의 기록은 압도적인 것이어서 후백논리와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형상화하지 않고 현대극에서 자주 시도되는 매혹적인 악인의 형상으로 원균을 이해하고 그려내고자 하여도 쉽지 않다. 그의 실패는 명백하며 그의 오류는 치명적이다. 우리가 원균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원균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원균은 왜 선제공격을 꿈꾸었을까? 그도 장수였다. 장수에게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전략에 근거하여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니 어찌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패전을 괄호치고 생각하면 그도 나름대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 수 없다. 현재의 판단 거점은 이순신 진영에 구축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원균을 내려다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물적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원균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단지 의욕에 지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일기를 통해 구성되는 이순신이란 인물은 후덕하다기보다는 공과와 이해를 세밀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물이며 과감하다기보다는 신중하고 소심한 편에 가깝다. 한편 감정적으로는 매우 예민하고 신체는 매우 쇠약하여 선병질적인 측면마저 없지 않아 스스로 감정의 기복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당대의 유교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군왕에 대한 충성과 애민의 형태로 드러났다고 할 것이니 장수로서의 능력에는 군사의 통솔뿐만 아니라 군수품의 조달과 영내의 민간인에 대한 관리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적 리더십이라는 현재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 드라마의 '이순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굳은 신의를 지닌 인물이어야만 하며 따라서 극중 이순신의 성격은 이러한 '사실(史實)'을 수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승전한 후 연명 장계를 제안하는 원균 대신, 연명 장계

를 시도하는 이순신이 있고 이 이순신을 계통과 공을 따져 설득하는 권준이 필요해지는 것이다.(64회) 그러나 본래 장계는 다른 지휘계통을 거쳐 달리 올리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정은 이렇게 각기 다른 지휘계통을 거쳐 올라온 장계의 내용을 맞추어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재구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추구할 수 있었다. 즉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신념과 정의에 복무하는, 장애물과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이순신의 구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사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수진의 축약과 배우의 개성에 기대 인물들의 구성 또한 필연적이다. 통제영의 장수들은 권준, 신호, 김완, 이순신(동명이인), 정운, 어영담, 송희립, 나대용, 조수창 외에 경상 우수영에서 건너온 이영남, 우치적 등과 전라 우수영의 이억기, 황세득 정도가 등장하는 바, 이운룡이나 정걸, 이봉수 등의 인물은 축약되거나 생략되어 있다. 또한 정운 등의 성격도 부임초기의 갈등 전환에서 매끄럽지 못하여 일기에서 드러나는 만큼 마음이 표현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천수는 원작과는 달리 벗으로 설정되어 시작한 까닭에 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성격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물 자체가 유실되고 말았다. 이같은 인물의 축소, 변형 등은 해당배역을 연기하는 출연진의 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김완은 본래 평범한 이순신의 수하장수 중 하나였을 뿐이나 이 역을 맡은 박철민은 진보진영의 연극인으로서 '민주대머리'라 불리며 연마해 온 실력으로 장군으로서의 진지함과 감칠맛나는 감초역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성공함으로써 그 비중이 커졌고 권준역의 박찬환은 이순신의 최측근에서 이순신의 책사로서 기능을 담당하며 집단영웅의 대표명사가 될 수 있도록 조연과 깨달음을 제공하는 인물로 자리잡는다. 무엇보다 이순신 배역의 김명민은 방영 초기, 불안한 연기에서 비롯된 우려를 씻고 무게감 있는 용모와 발성으로 여성 시청자에게도 어필하는 데 성공하여 드라마 종반 시청률의 안정과 감동의 창출에 기여하였

다. TV드라마에서 배우의 연기력 또는 배우 자체는 문학적인, 혹은 대본상의 작가의도를 넘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층 인물들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재능을 지니고 등장하며 이들이 대변하는 민심은 곧 천심이 된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인물을 구상할 만한 풍부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층 인물들은 문헌 기록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3. 21세기형 영웅의 정체

역사학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국민국가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이자 그 자체 국민적 관심사로 재탄생했다. 중세까지만 해도 ‘역사’란 고대에 일어난 일, 그리고 교회의 과거나 성자들의 일생을 연구, 편찬하는 일을 뜻했다. 각축하는 민족의 이야기로서의 근대사라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의 작품이다. 왕이 아니라 국민국가가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되자 역사적 기억은 지금까지처럼 지배자의 명령이나 정당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 되었다.¹⁶⁾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신과 인간의 선택을 누리는 자만이, 민심은 곧 천심이어서 영웅은 행로는 곧 절대적인 선의 세계에 포함되던 전근대의 영웅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대중’적인 설득과정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정희 이후에야 비록 왜곡된 자본주의일망정 우리 사회의 근대적 외관이 제법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시대를 지배한 사회심리는 일종의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e)이다.¹⁷⁾ 꼬마하사관 출신의 황제, 나폴레옹은 누구나

16)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24쪽.

영웅이 되는 근대적 ‘대중영웅’의 모습과 전통적인 ‘엘리트 영웅’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영웅은 사라지고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대중적 의미로 영웅 숭배의 방식이 확장되고 변질되어 갔으며 좀더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영웅 숭배가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 이순신 숭배의 광풍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월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이순신’은 대중과 다르지 않은 불리하고 평범한 위치에서 끝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나아가 거룩한 순교와 성자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¹⁸⁾

그러나 21세기의 대중영웅은 단지 고문과 백의종군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제작팀은 이순신을 ‘진정한 리더’로 규정, 이순신 휘하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재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도요지 민초들의 삶을 부각하여 조선문화의 우월성을 선전하여 전란을 거쳐 간 민초들의 삶을 내밀하게 그려 역사의 주인은 민초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정의 무리한 출군명령 시에 이순신은 이러한 명을 거역하고 따를 수 없는 이유로 한 번의 패배가 곧 조선의 백성들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되풀이 강조한다. 그러나 장계에 의하면 명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명백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백성의 안위는 거론되지 않는다.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

선전관 고세충이 받들고 온 우승지의 서장 내용에 “이번에 접반사 윤근수의 서장에 의거하여 전선과 수군을 모조리 다 모아 부산 해역에 정제하여 있으면서 경솔히 움직이지 말고 경략의 지휘를 받아서 협력하여 적을 격멸

17) 최원식, 「80년대 문학운동의 비판적 점검」,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1997, 41쪽.

18) 윤진현, 앞의 글, 45-53쪽.

하고 나라의 치욕을 씻도록 하라”라고 분부하신 서장을 신은 오늘 5월 10일 진시에 경상도 거제땅 견내량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좌우도의 수군은 이달 5월 8일 그전 수효대로 견내량에 도착하여 적세를 탐망해 본즉, 웅천의 적들이 여전히 웅거하고 있는데 부산 해역을 차단하려 가는 데는 웅천이 길목이 되므로 부산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적이 앞뒤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군만으로는 유인할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부득이 육군과 합쳐 공격하여 쫓아내어 수륙에서 섬멸하여 먼저 길목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일로 체찰사(류성룡)와 순찰사(권율)에게 급히 보고하였으니 조정에서도 각별히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3년 5월 10일 「청 호서주사계원장장請 湖西舟師繼援狀」)¹⁹⁾

이상의 장계는 윤근수가 내린 부산으로 진격하라는 명을 받고 올린 것이다. 의주로 몽진한 조정이 수군의 승리에 힘입어 전황의 역전을 도모하고자 구상한 전술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명령이 야전상황에서 수행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그 이유로 적의 포위 공격의 우려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백성의 안위를 내세워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는 임금의 명령조차 따를 수 없다는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조합한 ‘민초’라는 모호한 단어는 백성의 지위로부터 근대 국민과 민족의 정체성을 추상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성취한 가장 중요한 변별점은 바로 임진왜란의 승전주체로 ‘집단 영웅’을 형상화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개연성이 있다.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데 대중은 동의하고 열광한다.

순신	도와주게. 날 도와줄 사람은 자네뿐일세.
권준	명령을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19) 조성도, 앞의 책, 125쪽.

순신 (보는데)
권준 허나 마음으로부터 좌수사 영감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
싫습니다.

흠칫 놀라는 순신, 단정한 눈으로 보는 권준.
싸늘하게 굳어져 있는 두 사람. 순신 묵묵히 건너다보는
데..

권준 그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장수들도 마찬가지로 일 겹니다.

순신 --

권준 허면 소관은 이만.. (예를 갖추고 돌아서는데)

순신 (힘겨운 연유를.. 물어도 되겠는가?)

권준 적이 오늘 온다면 전라좌수군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간 부패했고, 무능했으며, 게을렀던 장수들 때
문이겠지요.

허나 적이 육 개월, 아니 일년 후에 온다 해도 우리 전라
좌수군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순신 권부사..

권준 관병 용모책을 다 외우셨겠지요?
군사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데도 말입니다.

순신 --

권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패인이 될 것입니다.
내일 훈련의 세부적인 계획도 이미 수립하셨겠지요?
장수와 병졸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일만 남았을 것입
니다.

순신 --

권준 화포는 언제 닦으실 것입니까?
배에 장착하는 일도 친히 하시겠지요.
살수와 습사수가 대부분인 군사들 중 포수는 어찌 확보하
실 요량이십니까?

이미 관병 용모책을 살펴..결정을 하셨겠지요.
아니면 순시를 하신 연후, 오늘도 밤을 새워 그 안을 세울
요량이시던가요. 아닙니까?

순신

권부사-

권준

내일도 장수들은 적잖이 당혹해 하겠군요.
납득할 수 없어 거칠게 항의하는 장수가 나온다면..
그는 또 어찌 됩니까?
사직소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순신

--

권준

수많은 전선은 왜 만드십니까?
영감께서 다 타실 수도 없는 없질 않습니까?
수개월 후, 아니 수년 후 적이 와도 우리는 패할 것입니다.
웬 줄 아십니까? 전라좌수군의 지휘관은 오직 한 사람뿐
이기 때문입니다.

(2005. 2. 12. 47회 방영분)

권준의 주장은 백 번 옳다. 앞서 언급했듯 장수의 재능 안에는 군사들을 통솔하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옳다. 부정적인 리더가 반드시 부패한 리더인 것은 아니니 이때까지 이순신이란 리더는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다. 그러나 권준과 같은 유능한 부하의 조언에 힘입어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진정으로 이순신을 따르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순신은 부하장수와 백성들은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부하와 백성들의 위대성이 힘입어 더욱 위대한 장수가 되었다.²⁰⁾ 위대한 이순신을 만드는 데 조력한 이름 없는 백성이란 상상은 오늘날 대

20) 출판계에서 어린이 도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최근 발간된 어린이용 이순신 전기는 흥미롭게도 '불말'을 앞세우고 있다. 그 중 재미있는 것은 고진숙의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 (한겨레아이들, 2004)이라는 것인데 이순신이 위대해지는 데 기여한 7명의 전문가를 다룬 것이다.

중의 미감을 깊이 충족시켜 준다. 아울러 신중한 판단으로 안전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 승리를 거두는 지도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와 기업을 한번에 침몰시킨 IMF의 악몽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차별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부하의 능력을 살피고 파격인사를 감행하는, 무명소졸인 대중의 지위를 보장하는 지휘관은 모든 샬러리맨의 꿈이다.

따라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구상한 영웅은 대중 자신이다. 그리고 이 대중의 대표명사로서의 ‘이순신’은 21세기 대중의 꿈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회의 엔딩 나레이션은 앞으로 이순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권준(E) 통제사 이순신.. 그와 함께 우리는 왜적을 맞아 스물세 번을 싸워 스물세 번을 이겼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은 비단 왜적만이 아니었다.

이순신(동) 반가의 자제들이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은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순신 나라를 지키는 데 반상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 조선이 어디 농군과 종북들만의 나라라던가..

이순신(동) 우리는 지난 이백 년간 조선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수많은 관행, 그리고 구습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김완(E) 또한 우리는 무기력하고 나태한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

순신(E) 모두가 안된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해도.. 귀신

의 건조는 절대 멈춰서는 안된다.

나대용(E) 우리는 수많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또 도전했으며... 마침내 승리했다.

순신(E) 함대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야.

우치적(E) 패전의 뼈아픈 치욕과 싸워 승전고를 울렸다.

순신(E) 오직.. 희망은 사람에게 있으니.. 그대들이 품은 결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마라..

권준(E) 깊은 절망과 싸워 이겼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권준(E) 영웅이라 이름하기에도 너무나 큰 인간.. 이순신.
우리는 그를 그가 사랑했던 조선의 바다에 묻는다.
그러나... 우린 아직 그를 보낼 수 없다.
왜적을 맞아 전승을 기록한 위대한 군인으로만 그를 기억코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적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을 때...
원칙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용기가 있을 때...
백성을 하늘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05년 8월 28일 104회 방영분)

이순신은 조선사회의 해묵은 관행, 구습과의 싸움을 시작했으며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기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또한 이순신은 수많은 불가능에 도

전하였으며 승리하였고 희망의 원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깊은 절망과 싸워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이제 자기자신이라는 적을 발견하여 가르쳤고 원칙을 지키는 용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백성이 하늘이라는 21세기적 가치를 담지하고 계시하는 새로운 인물이 되었다. 이제 대중은 자신이 요구하는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영웅 이순신에 열광하면 되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정된 지면으로 상세한 논증과정이 생략된 바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순신은 일찍이 근대국가의 정립시기라 할 수 있는 구한말부터 역사 전기물 등의 장르를 통해 그 근대적 영웅서사의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197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적 영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로 닥친 경제 위기와 국가적 영웅 서사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국민적 필요에 따라 ‘이순신’은 새로운 영웅으로 호명되었다. 김탁환의 『불멸』과 김훈의 『갈의 노래』는 박정희 체제에서 이순신을 영웅으로 교육 받은 세대가 ‘이순신’으로부터 ‘박정희’를 소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웅, ‘인간 이순신’으로 쇄신한 결과이다.

KBS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매스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의 ‘대하드라마’라는 공공 형식으로 재생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존의 대하드라마와는 다르게 수미가 상응하는 완결된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순신의 영웅성을 집단적으로 재해석하여 이순신을 평가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작품에서 이순신은 단독의 영웅이 아니라, 정운, 나대용, 권준 등 수많은 수하장수와 장졸들의 헌신 및 충성과 함께한다. 이순신의 영웅성은 이순신 개인의 지략과 전술보다 이들을 발탁하고 재능을 끌어내며 이들에게 변치않은 신뢰와 후원을 보내는 데서 보다 강조된다. 이순신의 이러한 면모를 강조하기 위하여 KBS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여성인물의 약화와 부정적인 주변인물의 실종 등 서사 상의 파행을 야기하였고 대립적인 인물인 원균과 윤두수 등의 서인의 역할은 초기의 제작의도와는 달리 단선적인 악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국정책임자인 선조의 부정성이 크게 부각된 바, 이순신과의 동일시를 통해 국가적 구원자를 자처하던 박정희의 그림자를 국정책임자의 부정적 역할에 기대어 효율적으로 제거하려던 원작자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이다.

이 작품이 기존의 작품과 다른 점은 곤양의 도요지를 젊은 날의 이순신의 방랑처로 설정하고 일명 차사발전쟁으로도 불리는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수명적으로 결합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원작자 김탁환의 역사적 상상력이 빚어낸 특유의 산물로 이순신을 민중의 지도자로 규정하는 기반이 된다. 이것은 구원자 이순신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재능과 역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하는 데에 21세기적 요구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http://www.kbs.co.kr/drama/leesoonsin/index.html>

- 김훈, 『칼의 노래』 1-2, 생각의 나무, 2001.
- 김탁환, 『불멸의 이순신』1-8, 황금가지, 2004.
- 고진숙,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 한겨레아이들, 2004.
- 김태훈, 『이순신의 두 얼굴』, 창해, 2004.
- 남천우, 『이순신』, 역사비평사, 1994.
-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 성백용, 「웁긴이의 말」, 크리스티앙 아말비,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프랑스 역사에 나타난 영웅의 탄생과 몰락』, 아카넷, 2004.
- 윤진현, 「1970년대 역사 소재극에 나타난 담론투쟁 양상 - 이재현의 '성웅 이순신'과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6호, 2004.11, 34-62쪽.
- 이순신 지음/ 최두환 역주, 『忠武公李舜臣全集』 1-6권, 우석출판사, 1999.
- 이순신/송찬섭 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 이은상, 『성웅 이순신』, 삼중당, 1984.
- 이은상, 『李忠武公全書』, 충무공기념사업회, 1960.
- 조성도 역, 『임진장초』, 연경문화사, 1983.
- 최원식, 「80년대 문학운동의 비판적 점검」,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1997.



Lee Sun-shin and Renovation of the Hero

Youn, Jin-Heon

Lee Sun-shin have been adored as a national hero after 1970's. We seemed to get a definite distance from his heroic quality with the passage of 1980's. According to national needs which owned memory of national heroic narration in common, Lee Sun-shin have been called again by new hero in economical crisi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until now. Kim Tak-whan and Kim Hun, who studied Lee Sun-shin as a hero in Park Jeong-hee's autocracy, eliminated 'Park Jeong-hee' from Lee Sun-shin and renovated 'Human Lee Sun-shin' as new heroic form in each [Immortality] and [Poetry of Sword]. Lee Sun-shin who was originated by them, however, can not perfectly new form when we pay due regard modern national hero to visualize according to need of national ideology. Also their attempt are not according to author's personal needs and creative passion, but social and national demand which needs new hero for the new generation.

[Immortal Lee Sun-shin] of KBS was reproduced as the public form of Dae-ha(大河) drama by this social demand. This work differ from established Dae-ha drama in taking complete form which beginning corresponds with

end. It also makes new table of distances to estimate Lee Sun-shin to reinterpret his heroic quality collectively. In this work, Lee Sun-shin is not sole hero but becomes a hero with devotion and faithfulness of Jeong Won, Na Dae-yong, Kweon Jun, and other under officers and men. His heroic quality does not only begin his personal resources and tactics, but also constant confidence and support to the men under his command. Out of this crippled narration arose in [Immortal Lee Sun-shin]: weakening of women characters, disappearance of negative characters around Lee Sun-shin, and etc. Contrary to the first productive intention, antagonists could not escape the narrow wicked: Won Gyun, Yun Du-su, and Seoin(西人). On the other hand, this work excluded Park Jeong-hee's shadow from Lee Sun-shin to etch Seon Jo(宣祖)'s negative aspect who was responsible for national administration at that time. It is the results which is accomplished by the author's intention.

This work differ from other established works in creating young Lee Sun-shin as wanderer and combining him fatalistically with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952(壬辰倭亂). It was bright product of author Kim Tak-whan's historical imagination, and [Immortal Lee Sun-shin] becomes new foundation to provide Lee Sun-shin as a popular leader. It means that the twenty-first century do not demand Lee Sun-shin as the Messiah, but as new leader who derive individual abilities and roles of whole nations.

Key Words

Lee Sun-shin, *Immortal Lee Sun-shin*, Dae-ha(大河) Drama of KBS, the Collective Hero,

the Popular Leader.

* 위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8일 심사 완료 후, 12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CS I